

『錦溪日記』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

김미선*

차례

- I. 머리말
- II. 노정과 서술적 특성
 - 1. 탈출 과정의 구체적 묘사
 - 2. 催歸文과 중국인 문답
- III. 『금계일기』에 반영된 작자 의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魯認(1566~1622) 『錦溪日記』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 중 탈출에 의한 중국으로 이동과 중국 생활은 노인만의 특수한 노정으로, 이 노정으로 인한 서술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금계일기』의 서술적 특성은 '탈출 과정의 구체적 묘사', '催歸文과 중국인 문답'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노인의 귀환은 일본인 몰래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이었기에 탈출 과정은 가장 걱정적인 과정이었고, 노인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조선으로 출발이 쉽게 결정되지 않아서,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인 '催歸文'을 통해 귀환 의지를 표출하였다. 또한 노인은 중국 생활 중 중국의 학문, 제도 등에 대한 중국인과의 문답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다.

『금계일기』에 반영된 작자 의식으로는 유학자적 의식을 볼 수 있다. 노인은 유학의 본 고장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강학에 참여하는 과정을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연구원

기록하고 학문에 대해 묻고 토론하며 중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의 선비가 유학자적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포로로 해외체험 중에 기록한 실기에 유학자적 작자 의식이 두드러진 것은 중국 체험이라는 노정과 관료가 아니었던 상황이 맞물린 『금계일기』만의 개성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노인, 『금계일기』, 임진왜란 포로, 중국 노정, 서술 특성, 최귀문, 작자 의식

I. 머리말

魯認(1566~1622)의 자는 公識, 호는 錦溪, 본관은 함평이며 나주 사람이다. 17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향촌사족으로 성리학을 수학하던 노인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다. 약 1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權慄(1537~1599) 휘하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였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권윌을 도왔다. 권윌과 함께 하동 진지에 있던 노인은 1597년 8월 10일 일본군이 남원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접한 권윌의 명으로 지원군을 이끌고 남원성으로 갔다. 명의 지원군과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대접전을 치렀으나 8월 15일에 남원성은 함락되었고, 노인은 권윌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가다가 화살에 맞고 쓰러져 포로가 되었다.¹⁾ 그 후 일본으로 끌려가 伊豫州 浮穴에서 역류생활 중 한 차례 배를 타고 탈출하려

1)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노기욱의 논문 「錦溪 魯認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11쪽; 「壬亂義兵將 魯認의 日·中遍歴과 對倭復讐策」, 『한국인물사연구』 2,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313-316쪽 참조.

다 실패한 후 和天州 日根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화천주에서 만난 중국 차관 陳屏山과 李源澄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가는 배편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1599년 3월 17일에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福建省으로 갔다가 귀국을 승인받고, 북경을 거쳐 1600년 1월에 한양으로 돌아왔다.²⁾ 그리고 이러한 해외체험의 과정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 노인의 『금계일기』이다.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는 노인의 『금계일기』 외에도 姜沆의 『看羊錄』,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가 있다. 모두 호남의 문인이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억류 생활 후 돌아오는 노정을 담고 있는데, 이 중 노인만이 중국을 경유하여 돌아왔다. 당시 전쟁에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였으니 노인은 모든 임진왜란 관련 나라를 경험한 것이다.

현전하는 『금계일기』는 1599년 2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4개월 7일간의 기록으로 앞과 뒤가 끊어진 채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것 전후로도 일기를 썼을 것으로 추측되나, 포로로 보낸 2년 5개월 가량의 경험 중 4개월 여의 일기만 전해져 완결되지 못한 점이 있다.³⁾ 그러나 다른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에는 없는 중국으로의 탈출 과정과 중국체험 부분이 담겨 있고 양적으로도 풍부하여, 현전하는 부분 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2) 해외체험의 전 과정은 1823년에 간행된 『錦溪集』 권3의 글 「壬辰赴義」, 「丁酉被俘」, 「蠻徼涉險」, 「倭窟探情」, 「和館結約」, 「華舟同濟」, 「漳府答問」, 「海防敍別」, 「興化歷覽」, 「福省呈謁」, 「臺池舒懷」, 「院堂升薦」, 「華東科制」, 「聖賢窮亨」에 순차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금계일기』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추측된다.

3) 이우경은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38쪽에서 앞 부분이 없어서 포로 생활 당시의 기록은 없고 중국 배를 타고 중국을 거쳐 오는 탈출 과정이 거의 전부이므로 일종의 탈출기라고 보았다.

그 동안 『금계일기』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임진왜란 관련 문학 연구를 하면서 하위 범주로 연구한 경우⁴⁾와 노인에 대해 연구한 경우⁵⁾가 있지만, 『금계일기』 단일 작품에 대한 연구는 김진규의 논문 한 편만이 존재한다. 김진규는 일기문학이라는 장르에 집중하여, 『금계일기』의 일기문학적 특징으로 ‘체험 세계의 내면화’, ‘기행적 요소’, ‘문사적 우월감과 유교 이념’을 파악하였다.⁶⁾ 이러한 김진규의 연구는 『금계일기』 단일 작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이자 중요한 내용 요소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기문학적 측면에 집중하여 『금계일기』의 중요한 창작 기반인 노정을 소홀히 하여 아쉬움이 있다.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는 모두 포로로 피랍되어 일본에서 억류생활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노정을 기록한다. 그리하여 당대 포로 해외체험을 형상화한 작품군으로서 공통성을 가지지만, 각 개별 작품은 작자만의 특수한 노정으로 인한 서술적 특징을 갖는다. 또한 작자들은 모두 20~30대의 젊은 호남 문인이지만, 실기를 기록하는 주된 작자 의식에 따른 서술상의 개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정에 따른 서술적 특성과 작품에 반영된 작자 의식을 고찰하여, 『금계일기』만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4)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海外體驗 - 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9·10, 겨레어문학회, 1985;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實記文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 實記文學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진규, 「임란 포로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장경남,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등.

5) 노기욱, 「錦溪 魯認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노기욱, 「壬亂義兵將 魯認의 日·中通歷과 對倭復讐策」, 『한국인물사연구』 2,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6)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금계일기'를 중심으로 -」, 『새얼어문논집』 10, 새얼어문학회, 1997, 94-95쪽.

II. 노정과 서술적 특성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의 작자들은 공통적으로 ‘피란-피랍 및 일본 이송-일본 억류-귀환’의 노정을 겪었다.⁷⁾ 노인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고,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귀환’의 과정이 다시 새로운 노정으로 세분화된다. 곧 ‘중국으로 이동-중국 생활-조선으로 귀환’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현전하는 『금계일기』에는 일본 억류의 마지막 약 한 달의 기간과 귀환 중 ‘중국으로의 이동-중국 생활’ 부분이 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기에는 없는 중국으로의 탈출 과정과 중국 생활이라는 『금계일기』만의 특수한 노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부분의 노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노정	기간	주요 내용
일본 억류	2월 21일~3월 16일	- 중국인 陳屏山과 李源澄 등과 탈출 준비
중국으로의 이동	3월 17일~3월 28일	- 3월 17일 항해 시작 - 3월 28일 중국 福建省 도착
중국 생활	3월 29일~6월 27일	- 중국인과의 교류 - ‘催歸文’ 작성 - 5월 12일부터 兩賢祠書院의 강학 참여

7) 장경남은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90쪽에서 ‘피란(방어)-피랍-포로 생활-탈출-고난-귀향’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본 이송’이 생략되었는데 중요한 노정이므로 ‘피랍 및 일본 이송’으로 구분하였고, ‘포로 생활’은 의미가 광범위 하여 ‘일본 억류’로 바꾸었다. 또한 ‘탈출-고난-귀향’은 모두 ‘귀환’의 과정이다. 더구나 ‘탈출’의 경우는 노인만 해당되고 다른 실기의 작자들은 일본의 승인 하에 귀환을 한 것이었다. 또한 강항의 경우 귀환 중의 고난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고난-귀향’은 모두 ‘귀환’으로 묶었다.

김진규는 『금계일기』의 내용을 ‘일본 탈출-중국 도착의 고행담-양 좌영과 중국인의 호의-양현사 강학의 특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⁸⁾ 양현사서원 강학 참여부터는 중심 내용이 강학 참여 위주로 달라지지만 ‘노정’을 중심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금계일기』는 탈출에 의한 ‘중국으로 이동’과 ‘중국 생활’이라는 특수한 노정으로 인해 작품만의 서술적 특징을 갖는다. 강항, 정희득 등이 일본의 승인을 얻어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환을 한 데 반해, 노인은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일본인 몰래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그의 탈출 과정은 가장 격정적인 과정이므로, 노인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 노인은 중국인들의 도움 속에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승인을 얻어야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조선으로의 출발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노인은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인 ‘催歸文’을 쓰게 된다. 중국에서의 생활 중에는 중국인과의 교류 위주로 서술하며 감정 서술이 적었던 노인은 이 공식적인 글인 최귀문에 본인의 감정을 서술하는데, 특히 귀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돌아가는 날이 확정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강학에 참여하며, 중국인들과 교류하게 된 노인은 중국인과의 문답을 일기에 실는다. 새로 접한 중국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이 중국의 학문이나 제도 등에 대해 물은 것에 대한 중국인의 대답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노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8) 김진규, 「임란 포로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4쪽.

1. 탈출 과정의 구체적 묘사

노인은 한 차례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 실패한 후 和天州로 이송되었고, 화천주에서 만난 중국 차관 陳屏山과 李源澄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현전하는 일기가 1599년 2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인데, 이 중 전반부에 탈출 준비부터 성공, 중국으로의 항해와 중국 복건성의 항구 도착까지 전 과정이 실려 있다. 『금계일기』의 중요한 부분인 탈출 과정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⁹⁾

기간	과정
1599년 3월 1일~3월 16일	탈출 준비
1599년 3월 17일	탈출 성공, 항해 시작
1599년 3월 18일~3월 27일	중국으로의 항해
1599년 3월 28일	중국 복건성의 항구 閩에 도착

현전하는 일기 중 탈출과 관련해 처음 나온 것은 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수로와 육로를 아울러 돌아가는 길이 억만 리라며 괴로워하는 노인에게 진병산이 이미 말한 바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3월 1일 일기이다. 여기에서 ‘이미 말한 바’는 함께 중국으로 떠나는 일로 추측되며, 이미 전에 중국 배를 타고 함께 중국으로 가기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일기에는 꿈 등의 작은 일들이 서술되어 있고 탈출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를 탈출 준비 기간으로 보았다.

9)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37쪽.

3월 1일 이후부터 노인은 탈출 준비에 모든 신경을 쏟으며, 지속적으로 탈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일기에 기록한다.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기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일자	중심 내용
3월 1일	- 아픈 상태에서 돌아갈 길을 걱정하는 노인과 이미 말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陳屏山의 대화
3월 2일	- 배가 곧 뜰 것이라는 진병산의 말
3월 3일	- 뱃사람과 잔치
3월 4일	- 고국 돌아가는 꿈
3월 5일	- 진병산과 술 마심
3월 6일	- 진병산이 글씨 쓰는 것을 조심시킴
3월 7일	- 배를 탈 사람의 행장 배에 실음 - 진병산이 작년에 중국 배에 몰래 조선인을 싣고 가려다 실패한 일 이야기함
3월 8일	- 일본인이 뱃머리로 와서, 수색한 후에야 떠날 수 있다고 협박함
3월 9일	- 왜장이 배를 수색하면 함께 배를 타기 곤란하다는 진병산의 말
3월 10일	- 조선인과 함께 떠날 계획 - 조선사람 奇孝淳, 鄭東之 등을 만나 함께 탈출하자고 설득
3월 11일	- 기효순 등에게 은자를 주고 양식을 준비시킴
3월 12일	- 진병산 등에게 거룻배를 타고 먼저 나가있다가 수색이 끝난 후 합류할 계획 설명
3월 13일	- 기효순 등이 양식 구입 내용 설명 - 기효순 등에게 중국을 통해서 가는 계획과 중국으로 가는 이유 설명
3월 14일	- 효순 등에게 물통 등 준비시킴 - 중국 배를 만나는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진라도로 바로 갈 계획 설명
3월 15일	- 진병산, 李源澄, 손님과 술을 마시며 문답을 함 - 손님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福建省 軍門에서 마부와 말을 내어 북경으로 호송하여 주겠다고 약속

3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날 만남 손님이 누구였는지 진병산, 이원징과 문답 - 손님에 대한 설명 : 복건성 군문에서 보낸 관리 林震毓 - 중국인들에게 감사함 표시
--------	---

위의 표를 보면 16일 중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에 대해 서술한 3월 4일 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탈출 준비와 관련된 일을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¹⁰⁾ 탈출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온통 탈출에 집중하여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이 배를 수색한다는 것을 알고 탈출 시도를 못할 뻔 했던 노인은, 다시 조선인들과 거룻배를 타고 섬에 미리 나가있다가 중국 배에 옮겨 타는 계책을 세우고, 1599년 3월 17일 탈출에 성공하였다.

나는 거룻배를 타고 연안을 몰래 떠나서 개펄 밖에 작은 섬을 의지해 대니 거리는 15리 남짓했다. 밤이 새도록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해가 뜰 무렵에 중국 배가 과연 갯가로 나와 돛을 반쯤 달고 차츰 작은 섬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었다. 나는 거룻배로 나가 맞이하며 뱃머리에 서서 손을 흔들며 임공을 급히 부르니, 진·이가 바라보며 돛을 내리므로 나는 노를 재촉하며 나는 듯이 중국 배 곁으로 갔다. 진·이가 커다란 밧줄 두 끝을 내리뜨려 거룻배의 앞뒤를 매게 하고, 또 새끼줄 하나를 내리므로 나는 먼저 붙들고 올라갔다. 효순 등도 차례로 다 올라간 뒤에 거룻배도 중국 배에 신고, 나를 보던 진·이는 서로 다투어 내 손을 잡고 말하기를, “그대의 목숨이 귀합니다.” 하였다. 배를 같이 탄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매우 귀합니다.” 하며, 곧 백주 한 잔을 주기에 나는 말하기를, “기쁜 기분이 가슴에 가득 차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합니다.” 하니, 좌우에서 모두 웃는다. 세찬 바람에 돛을 다니 빠르기가 나는 용과 같았다.¹¹⁾

10) 3월 3일 뱃사람과의 잔치와 3월 5일 병산과 술을 마신 일도 크게 준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1) 我乘小艇，沿岸潛發，依泊於浦外小島，相距十五餘里。達夜疑懼，平明，華舟果出浦外，風帆半掛，漸近小島。我迎出小艇，立于船頭，揮手招招林公，陳李望見下帆，我促櫓如飛，傍于華舟，則陳李以大索二端垂下，使結小艇頭尾，又下一索，我先攀登。孝淳等亦次

위의 글은 3월 17일자 일기의 뒷부분이다. 일기의 앞부분에는 일본인들이 배를 수색하려고 하자 효순 등에게 준비를 시키고, 임진혁과 다시 약속을 하는 내용과 중국인 진병산 등과 작별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이 노인은 기효순 등과 거룻배를 타고 작은 섬으로 가고, 작은 섬에서 밤새도록 의심하고 두려워하다가 다가오는 중국 배를 맞이하여 배에 올라탄 후 진병산 등과 손을 붙잡고 기뻐한다. 술잔을 들고 기뻐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하다는 노인의 말과 용처럼 빠르다는 배의 움직임으로 서술을 끝맺어 행복한 탈출의 성공을 볼 수 있다.

노인의 탈출은 준비부터 걱정적이었다. 노인은 이러한 탈출의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11박 12일에 걸친 중국으로의 항해 또한 하루도 빠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¹²⁾ 강항과 정희득 등 다른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 작자들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여러 섬을 거쳐 이동하였고, 노인처럼 긴 기간 배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1599년 6월 29일자 일기를 보면 ‘바람이 순하여 닭이 울자 배를 띄었다. 어스름 저녁에 부산 앞 바다에 닿았다’¹³⁾라는 기록이 있어 최종 정박지에서 하루 만에 부산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次皆登後，小艇亦載于華船，而視我與陳李爭執我手曰，爾命貴矣。一船皆曰，貴哉貴哉。卽饋白酒一盃，我曰，喜氣填胸，不食如飽。左右皆笑。帆掛長風，疾如飛龍。 - 魯認, 『錦溪日記』, 1599年 3月 17日.

12) 3월 20일자 일기는 없고, 3월 21일~22일은 함께 묶여 기록되어 있으며, 3월 24일은 두 번 나온다. 보통 노인은 일기의 처음에 날씨를 기록하는데, 두 번의 3월 24일 일기 모두 ‘靑’이라고 날씨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날짜에 일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1일~22일은 날씨가 나빠 고생했던 때로, 배 위에서 날씨마저 좋지 않아 날짜 등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일기가 두 번이므로 20일자 일기가 없으나 총 일수로 파악하면 하루도 빠지 않고 일기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13) 風順，鷄鳴發船。薄暮到泊釜山前洋。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6月 29日.

한 강항과 정희득 등은 일본인의 승인을 얻어 귀한한 데 반해, 노인은 일본인 몰래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조선이 아닌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으므로 노인에게 항해는 중요한 일이었다.¹⁴⁾ 그렇기에 노인은 항해의 과정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 노정을 부각시킨다.

① 동풍이 바닷물을 걷어 올리고 큰 비는 물 쏟듯 하며, 무서운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맑았던 날씨가 캄캄해지고 눈덩이 같은 파도가 오르내리니, 배도 따라 떴다 잠겼다 한다. 구부러 파도 속을 바라보니,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하고 뛰는 물결은 높이 솟아 배 위에 물이 가득했다. 그러나 배 다락과 갑판을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 戰船과 비슷하여 가운데는 높고 가 쪽으로는 기울어졌다. 석회로 갑판 틈을 발라서 비가 내리고 물결이 올라온다 해도 저절로 흘러서 뱃전으로 내려가고, 곧바로 배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 뱃사공이 말하기를,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니 조금도 두려워 마시오.” 하였다.¹⁵⁾

② 맑음. 큰 고래가 바닷물을 내뿜으니 공중에서 눈이 날리는 것 같았다. 뱃사람은 놀랄 듯 기뻐하며 말하기를, “배가 이미 건너왔습니다.” 하니, “어떻게 아는가?” 하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물속에 사는 동물은 물이 얇은 바다 개펄에 있기를 좋아하고, 넓고 깊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물이 얇은 것으로 짐작되니, 이것으로 압니다.” 한다. 이윽고 한 젊은 사람이 배 안에서 나와 피리를 부니, 온 뱃사람이 모두 즐겁게 듣는다. 나는 절구 한 수를 지었는데, 임차관이 와 보고 말하기를, “句法이 淸妙하다.” 하니, 온 뱃사람이 모두 보았다. “큰 고래 뿜는 물 눈을 이루니 / 충천하는 금 기둥에 지는 햇빛 비졌어라 / □□하여

14) 탈출 준비부터 중국으로의 항해 부분에 대해 김진규는 「임란 포로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6쪽에서 ‘작품의 가장 긴장된 사건이며, 작가의 의도적인 소재 선택은 공포와 억눌린 감정은 물론, 희망까지도 교차하는 다기적 변화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15) 東風捲海, 大雨如注, 怒濤連天, 白日黑昏, 雪屋高下, 舟從浮沒. 俯見波心, 如臨洞壑, 超浪高聳, 波滿船上. 然樓板之制, 彷彿我國戰船, 而中高邊側, 以石炭塗于板隙, 雨雖下而波雖上, 自流下舷, 直不入船中矣. 然舟人則大懼, 篙工曰, 此風正順, 萬萬無疑矣. - 魯認, 『錦溪日記』, 1599年 3月 21日~22日.

중국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았으니 / 뱃사람은 흥겨워 피리를 부는구나”¹⁶⁾

①은 3월 21일~22일 일기의 전문으로, 항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씨와 관련한 기록이다. 바로 전날 일기에서는 바람이 순하여 배가 두 배나 빨리 가니 몸이 신선과 같았다는 기쁜 마음이 나와 있고, 이어진 ①에서는 반대로 날씨가 나빠져 힘들게 항해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큰 비가 물 쏟듯 하고, 파도가 하늘에 맞닿아 날이 캄캄해지고, 눈덩이 같은 파도가 오르내리는 등 거친 날씨가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배에 물이 들어차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글을 끝맺긴 하지만 항해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날씨 때문에 괴로워 하였으나 23일에는 바람이 순하고 파도가 고요해져 일행이 기뻐한다.

이후 멀미를 하고, 돛을 단 줄이 풀리기도 하는 등 작은 위기를 겪지만 배는 안정되게 중국으로 향한다. 그리고 중국에 가까워지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②의 글에서 볼 수 있다. ②는 3월 25일 일기의 전문으로 고래가 바닷물을 내뿜는 모습이 눈이 날리는 것 같다고 묘사한 후, 뱃사람들이 배가 육지에 다가왔다고 설명한 말을 싣고 있다. 젊은 사람이 나와 피리를 불자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노인은 시로 기쁨을 표현한다. 시는 일기에 묘사한 내용을 다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인데, 먼저 고래가 뿜은 물의 눈 같은 모습과 석양의 빛이 금빛으로 배에 반사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아름다운 묘사만으로도 노인의 행복한 심리를 볼 수 있는데, 이후 중국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아 뱃사람이 흥겨워 피리를 분다

16) 晴。長鯨噴海，半空飛雪。舟人驚喜曰，船已渡矣。我曰，何以知耶。答曰，凡水族，皆喜在水淺海浦，而不喜在蒼溟極深處。今見鯨兒之噴，想必水淺，是以知也。既而，有一年少年，自船中出，以風管，一舟皆喜聞。我遂作一絕，林差官來見曰，句法清妙矣。一舟皆見。海波成雪長鯨噴，金柱撐空落照斜。中華知不遠，舟人乘興動清笳。- 魯認, 『錦溪日記』, 1599年 3月 25日.

고 하여 노인 또한 흥겨워함을 알 수 있다.

12일에 이르는 중국으로의 항해 부분은 날짜만 보면 현전하는 부분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바다라는 제어 불가능한 곳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향해 가는 노정이라서 의미가 깊다. 노인은 이 특별한 노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독자들은 탈출을 기뻐하고, 곳은 날씨에 괴로워하며, 다시 중국에 가까워짐에 행복해하는 항해의 전 과정을 노인의 시선에 따라 볼 수가 있다.

2. 催歸文과 중국인 문답

『금계일기』는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해외를 체험한 것을 기록한 실기이지만, 중국으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네 편의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의 성격과 함께 崔溥의 『漂海錄』이 갖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현전하는 『금계일기』에 중국으로의 항해와 중국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부의 『표해록』도 제주도에서 표류하여 중국으로의 항해 과정과 북경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중국에서의 노정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노정 부분에서는 중국인과 문답, 중국에 대한 묘사 등이 실려 있고, 두 작자 모두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최부가 빨리 귀환하고자 하는 욕망을 중국인과의 대화로 표현한 데 반해,¹⁷⁾ 노인은 공식적인 글인 최귀문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최귀문은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 중 중국 노정을 거친 『금계일기』만의 특징인 동시에, 비슷한 중국 체험을 기록한 최부의 『표해록』에도 없는 개성인 것이다.

17)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4-58쪽.

현전하는 『금계일기』에는 최귀문 4편을 비롯하여 총 8편의 글이 실려 있다. 작성한 글을 옮길 때 다음 줄에서 시작하고, 그 첫 줄 위 ‘○’표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 8편의 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일자	글의 종류	특징
1	1599년 4월 14일	최귀문	- 군문에 올린 글
2	1599년 4월 22일	최귀문	- 어사아문에 올린 글 - 사륙변려체로 작성
3	1599년 4월 26일	최귀문	- 군문에 모이는 여러 재상들에게 올린 글
4	1599년 5월 8일~9일	최귀문	- 군문에 모이는 여러 재상들에게 올린 글
5	1599년 5월 11일	감사의 글	- 徐 布政司가 책과 은 2냥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글
6	1599년 5월 15일	감사의 글	- 서 포정사가 양현사서원에서 학문을 할 수 있게 한 데 대한 감사의 글
7	1599년 5월 25일	부탁의 글	- 徐 宗師의 명으로 쓴 강학 참석을 부탁하는 글로, 매우 짧음
8	1599년 6월 7일	감사의 글	- 서 종사가 의관과 약을 보내 병을 고쳐 준 데 대한 감사의 글

위에서 서 포정사와 서 종사는 같은 인물인 徐匡嶽이다. 布政司는 한 省의 民政과 재정을 맡은 장관으로, 서광약은 당시 관직이 포정사였는데 그의 문인들이 宗師로 통칭하고 있었다. 이는 1599년 5월 12일 일기의 註를 통해 알 수 있는데,¹⁸⁾ 노인은 일기에 포정사와 종사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노인은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에 복건성 군문의 관리 임진혁으로부터

18) 종사는 곧 서 포정의 문인들이 서 포정을 통칭하여 종사라 한 것임.(宗師乃徐布政門人輩, 通稱徐布政曰宗師云) - 魯認, 『錦溪日記』, 1599년 5월 12일.

북건성 군문에서 마부와 말을 내어 북경으로 호송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3월 15일), 중국에 도착한 첫날 북건성의 장관은 노인과의 필담 후 노인의 상황을 이해해 준다(3월 27일). 하지만 북경으로의 이동은 쉽게 결정되지 않고, 노인은 좌영의 건의에 의해 최귀문을 쓰게 된다. 최귀문은 제목 그대로 '귀국하기를 재촉하는 글'이다. 귀국을 허락받기 위해서 노인은 본인이 빨리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글로 잘 드러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귀문에는 귀환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비록 백 가지로 추측해 보아도 집안의 친척은 다 죽어 肝腦가 땅바닥에 버려져 여우와 이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니, 가만히 생각하면 피눈물이 흐르며 오장이 찢어지고 혼이 나가 미칠 것만 같아 세상이 깜깜합니다.

슬픈 한 생각은 다만 돌아가서 금년 겨울 눈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백골을 거두고 영혼을 불러 선영 아래에 장사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더구나 왜적은 비록 도망갔다 하지만, 짐짓 후퇴한 것을 가지고 영구히 깨끗하게 씻었다고는 할 수 없음에라. 이에 □□□□ 일찍 고국에 돌아가 吳宮에 못을 파, 원수 갚을 계책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옳드려 비옵건대, 합하게서는 특별히 일찍 돌아가도록 명하소서. 대저 마음에 원한이 맺힌 자는 그 슬픈 소리가 목석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며, 정에 감동된 자는 그 정성이 귀신에게도 사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徐庶(촉한 영천 사람) □□□□ 만일 촉 나라 임금을 속였어도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저는 슬프고 괴로운 정이 마음에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나라에 보답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성의도 사리에 맞고 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다만 우리나라의 근심만이 아니며, 실은 천자께서 7~8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근심하셨던 일입니다.¹⁹⁾

19) 雖百爾推之，一家之親，皆死無餘，而肝腦塗地，狐狸有事，潛思血泣，五內崩摧，魂喪如狂，天日昏冥。哀哀一念，只在趨歸，今冬雨雪之前，亡親白骨收拾，招魂埋葬於先塋之下也。又況倭賊雖已退遁，不可以姑退，永謂之廓清，茲以□□□□早回故國，治吳雪恥之策，欲圖預備也。伏祝閣下，特命早回。夫怨於心者，哀音可以應木石，感於情者，至誠可以通鬼神。昔徐庶□□□□事若瞞蜀主，不以爲非。況某非徒哀疚之情，亂於方寸，報國復讎之

위의 글은 4월 14일자 일기에 실린 첫 번째 최귀문의 일부이다. 위의 글에 앞선 도입부에서 ‘온 집안이 왜적의 칼날에 죽거나 이리저리 떠도는 그 참혹한 화를 입었으니 또한 천하의 한 가련한 신세’라고 자신을 표현 하며, 마음 속 슬픈 회포를 털어 놓는다고 하여 자신의 가여운 처지를 말한 후 정유년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눈 물이 흐르며 오장이 찢어지고 혼이 나가 미칠 것만 같아 세상이 깜깜하다’라고 본인의 아픈 마음을 처절하게 드러낸 후 자신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부모의 백골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수 갚을 계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슬프고 괴로운 정이 마음에 얽혀 있다’고 하여 부모의 장사를 지내지 못한 개인의 슬픔을 이유로 대면서, 동시에 ‘나라에 보답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성의도 사리에 맞고 급한 일’이라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유를 대고 있다. 또한 이 일이 조선만의 근심이 아니라 천자가 7~8년간 조선을 위해 밤낮으로 근심한 일이라고 하여, 조선에 파병했던 중국과도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원수를 갚을 계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국에 귀환의 이유를 대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노인은 실제로 일본의 실정을 서술하여 서계를 올린다. 이는 노인이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조정에 도달했으며, 『선조실록』 선조 32년(1599) 12월 25일 기사에 ‘전 별제 노인이 서계로 10조를 바치다(前別提魯認書啓獻十條)’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최귀문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나온 본인의 처지, 전쟁 당시의 상황, 귀환에 대한 열망 등이 표현되어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의 특

誠，理順而事急，然則此事非獨弊邦之患，實聖天子七八載東顧宵旰之憂也。 - 魯認，『錦溪日記』，1599年 4月 14日。

수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본인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등은 모두 귀환해야 함을 호소하기 위한 장치로 쓰여진 것이므로, 최귀문은 결국 귀환의지를 표현하는 데로 귀결된다. 김진규는 고발정신과 복수의지가 최귀문과 같은 공식적인 글에서 표면화되고, 반대급부로 귀환의지라는 심리적 갈등과 용해되어 있다고 보았다.²⁰⁾ 하지만 귀환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전제로 고발과 복수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 상황을 고발한 것은 본인의 가련한 처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복수를 언급한 것 또한 귀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사륙변려체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두 번째 최귀문을 쓰고, 세 번째 최귀문에서는 귀환의 당위성을 조선이 오랑캐가 아닌 소중화의 나라라는 것과 조선이 표류한 중국인들을 후하게 호송해 준 것처럼 전쟁 중에 떠도는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노인의 귀환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최귀문을 쓸 때마다 다른 근거로 귀환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 번째 최귀문을 올리고 10여 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귀환의 일이 정해지지 않자 다시 쓴 네 번째 최귀문에서는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부모님의 유골을 찾아 장사를 지내야 하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감정에 간절히 호소한다. 눈이 내린 뒤라면 고향에 가도 부모님께서 화를 당한 곳을 알 수 없으며, 부모님의 혼을 눈 속에서 서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목이 메고 기진함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자신의 슬픔을 직접 호소한다. 『금계집』의 「행장」을 보면 ‘부모는 다행히 흉몽을 면하여 무술년(1598) 정월에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다. 선생은 묘에 막을 치고

20) 김진규, 「임란 포로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7쪽.

추복을 하였다'²¹⁾라고 기록되어 있어, 노인의 부모님이 왜적에 의해 죽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에 의해 장례도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외를 떠돌던 노인으로써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최귀문을 올리고 난 후 5월 10일에 노인은 군문으로부터 여름철에는 빗물이 넘쳐 보내줄 수가 없으므로, 가을이 되어 장마가 갠 후에 보내준다는 확답을 받게 된다. 이후 일기에서는 최귀문이 없고, 양현 사서원의 강학에 집중하는 안정된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노인은 이렇게 군문에 올리는 최귀문 외에 1599년 7월에 神宗皇帝께 「催歸原情疏」를 올렸다.²²⁾ 이 글도 그 동안의 최귀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귀환의 이유로 왜적의 실정을 조정에 고하여 원수 갚을 준비를 하는 것과 부모님의 백골을 거두는 것을 들고 있다. 황제는 '그대의 충은 文天祥과 같고, 그대의 절의는 蘇武와 같다'²³⁾고 치하하고 귀국을 허락한다. 이때의 일기는 멸실되었지만, 『錦溪集』에 「催歸原情疏」와 「催歸原情疏後」가 실려 있어 당시의 疏 전문과 소를 올린 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최귀문이 아닌 기록에서도 귀환에 대한 마음이 표현된 것을 몇 가지

21) 父母幸免兇鋒, 壽終於戊戌正月矣, 先生廬墓追服. - 李敦源, 『錦溪集』卷4, 「行狀」.

22) 金成愛는 「錦溪集 해제」,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해제3』, 민족문화추진회, 1999, 29쪽에서 「催歸原情疏」를 4월에 올렸다고 하였는데, 『錦溪集』에 실린 「최귀원정소」는 7월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금계일기』에 4월에 실린 세 최귀문이 「최귀원정소」와 내용이 다른 점, 1956년 간행된 『금계집』의 「최귀원정소」 註에 '기해년(1599) 7월에 신종황제께 올리다(上神宗皇帝○己亥七月)'라고 기록된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간행된 『금계집』 연보 1599년 4월 15일자에 '최귀원정소를 군문에 올렸다(催歸原情疏呈軍門)'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금계일기』 4월 14일 일기에 기록된 첫 번째 최귀문을 말하는 것이다. 곧 김성애가 해제에서 언급한 「최귀원정소」는 4월 14일자 최귀문을 다음날 올린 것으로, 『錦溪集』에 실려 있는 1599년 7월 「최귀원정소」와는 다른 것이다.

23) 爾忠如祥, 爾節如武. - 『錦溪集』卷4, 「催歸原情疏後」.

볼 수 있다.²⁴⁾ 그런데 노인의 귀환에 대한 마음이 표현된 것은 매우 적다. ‘돌아갈 마음이 갑절이나 간절했다’²⁵⁾와 같이 짧게 표현하거나, ‘꿈에 임금과 부모형제를 보았다’²⁶⁾와 같이 꿈에 대한 기록으로 고국과 가족을 그리워함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꿈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심리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 노인의 감정, 의지 등이 직접 드러난 것은 아니다. 꿈에 대해서는 『금계일기』의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꿈에 대해 ‘꿈에 ○○을 보았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한다.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꿈에서 깬 후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서글픈 감정까지 직접 표현하는 정희득과는 전혀 다른 면모이다.

마지막 최귀문을 제출하고 5월 10일에 가을에 보내줄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이후에는 위와 같은 기록도 볼 수 없다. 노인의 귀환에 대한 마음이 언급된 것은 본인이 병을 앓을 때에 와서야 볼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난 6월 6일과 7일의 기록에서이다. 병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귀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중국 노정에서 최귀문을 통한 귀환 의지 표출 외에 두드러진 서술 특성은 중국인과의 문답 제시이다. 탈출을 함께 했던 진병산 등과 이별한 후 노인은 다양한 중국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노인은 중국에서 중국 관리의 도움 아래 지내며 조선으로의 귀환이 승인되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관리 및 중국의 수재들과 교유를 한다. 그러다 보니 중국 생활을 기록한 『금계일기』에는 이들과의 문답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유학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강학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

24) 4월 20일, 4월 27일 일기에서 최귀문을 올리고 난 후 중국인과 최귀문 관련 이야기를 하는 중 노인이 다시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최귀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귀환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5) 歸心倍切. - 魯認, 『錦溪日記』, 1599年 4月 25日.

26) 晝夢中, 見君親兄弟也. - 魯認, 『錦溪日記』, 1599年 4月 25日.

문이나 중국 제도 등에 대해 묻고 그들의 대답을 신거나, 경학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중국 관리 중 가장 친밀하게 교류했던 인물은 좌영 楊洪震이다. 1599년 3월 28일에 중국 복건성에 도착한 후 4월 11일에 노인은 楊洪震을 처음 만나게 된다. 좌영은 조선의 종사관과 같은 직책으로, 노인에게 시를 청하고 노인의 시를 칭찬하며 호의를 보인다. 이후 노인은 양홍진의 관아에 가서 머무르게 되고, 양현사서원으로 간 5월 12일 이후에도 교류를 한다. 아래의 글은 양홍진과의 문답이다.

내가 답하기를 “소인의 마음과 일을 장군이 아니면 누가 알아주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학궁으로 추천하여 들어간 것은 모두가 장군의 덕택입니다.” 하니, 장군이 고개를 흔들면서, “각 아문에 바친 글을 본 여러 재상들이 탄복했습니다. 그때 지은 글은 모두 족하가 지었으니, 내가 추천한 것이 무슨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써서 보이기를, “처음부터 나를 보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은 누구시고, 나를 대접해 주신 분은 누구시며, 安撫해 주신 분은 누구시고, 글을 바치라고 지휘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장군의 은혜는 태산이 가벼울 지경입니다. 원컨대, 장군께서 시종일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 장군이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은 모두가 그대가 지니고 있는 재주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것이 어찌 나에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였다.²⁷⁾

위는 5월 18일 일기의 일부분으로 양현사서원에 머무르던 노인이 양홍진의 편지를 받고 양홍진을 찾아가 나누는 문답의 일부이다. 양현사서

27) 我答曰，鄙人心事，倘非將軍，誰能知愛。今日薦入學宮，皆將軍之賜也。將軍掉頭曰，各衙呈文，諸相嘆之。此時做文，皆足下做之，不佞之薦，何預於其間哉。我示曰，自初見我，知愛者誰，待我者誰，安撫者誰，指揮呈文者誰歟。將軍恩德泰山輕矣。願我將軍，終始一德。將軍曰，不佞之愛待，皆由爾實抱之才。爾之所抱，豈干於我哉。- 魯認, 『錦溪日記』, 1599年 5月 18日.

원은 武夷山에 있는 朱子書院, 곧 武夷書院이다.²⁸⁾ 『금계일기』에는 ‘무이서원’이라는 글이 없지만, 노인에 대한 다른 글에서 무이서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예로 許筠(1569~1618)은 1601년 漕運判官에 제수되어 漕運 감독을 위해 전라도 지방을 기행한 일을 「漕官紀行」이라는 글로 기록하였다. 이 글의 1601년 9월 20일자에 나주에서 노인을 만나 함께 잠을 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이 무이서원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²⁹⁾ 이외에도 『금계집』의 여러 기록에서 ‘무이서원’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본 논문에서는 노인이 『금계일기』에 쓴 명칭을 따라 ‘양현사서원’이라고 칭하였다.

인용된 부분에 앞서 양홍진이 강학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노인이 참석하도록 추천받은 일이 다행이라고 하자, 위와 같이 노인은 양홍진의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문답은 서로에 대한 칭찬과

28) 무이산은 주자학의 온상으로, 주자는 71년 생애 중 50년 가까이를 무이에서 보냈다. 주자는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세우고, 이곳에서 『易學啓蒙』, 『孝經刊誤』 등을 지었다. 무이산은 주자 사후에도 숭한 인물들이 찾아와 주자학을 이었으며, 1518년 무이정사를 중수하고서 ‘무이서원’이라고 편액을 걸었다. (홍원식, 「주자학의 요람, 福建 武夷書院」, 『오늘의 동양사상』 12, 예문 동양사연구원, 2005, 22-25쪽)

29) 저녁에 魯認과 함께 묵었다. 노인은 나주 사람이다. 정유년(1597)에 왜적에게 붙잡혀 西海道에 이르렀을 때 몰래 중국배에 타고 福州(복건성)에 도착하여 撫院 金學會에게 호소하니 학증은 돈을 후하게 주어 武夷書院에 있게 하였다. 서원의 여러 학생들도 모두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 (夕與魯認同宿. 認, 州人也. 丁酉, 被賊擒至西海道, 潛附唐舶, 達于福州, 訴于撫院金學會, 曾厚給銀幣, 安頓于武夷書院. 諸生俱善視之) - 許筠, 『惺所覆韻稿』 卷18, 「漕官紀行」.

30) 閩중에 들어가, 무이서원의 여러 유생들과 『대학』 止修의 도를 강론하였다. (入閩中, 與武夷書院諸生, 講論大學止修之道) - 李亨達, 『錦溪集』 卷5 附錄, 「李參判撰」.
무이서원에 들어가며 원장 및 여러 유생들이 뒷자리를 비워두고 읍양의 예를 갖추었다. 程朱의 학과 『綱目』, 『春秋』, 禮經, 詩書, 百家語를 강토함에 공(노인)이 講解에 능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因入于武夷書院, 院長及諸生, 虛上座揖讓, 講討程朱之學及綱目春秋禮經詩書百家語, 公無不講解融貫) - 『錦溪集』 卷7 附錄, 「湖南節義錄」.

감사로 일관되어 있어, 서로에 대한 깊은 호감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5월 5일의 일기 전체를 명절의 예물을 받지 않는 양홍진의 청렴성과 사람들의 양 좌영에 대한 칭찬을 기술하는 등 양홍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호감을 보인다.

중국 생활 중 중국인과의 문답이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된 것만은 아니다. 양현사서원에 들어간 이후 그는 학문, 중국의 제도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다음은 양현사서원에 있으면서 수재 謝兆申과 『心經』³¹⁾에 대해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맑음. 일찍 사 수재의 방으로 가서 『心經』 배우기를 청하니, 대답하기를, “『심경』은 다만 人心과 道心の 구분을 규명한 것이라, 그 『심경』의 주가 되는 말은 오로지 敬이란 한 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로 敬이란, ‘主一無適’하여야 항상 깨닫는 법이요, 하나의 物도 그 안에 포용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현의 철두철미한 공은 모두가 敬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경으로써 조종하는 것을 마음의 공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지럽고 흔들려서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아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하가 일찍이 본국에 있을 때, 이미 평소에 師友와 講明하였을 것이니, 『심경』은 다시 강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또 ‘吾道一以貫之’에서 一이란 精一의 一자니, 다만 人과 道의 사이를 분별하여 敬으로써 조종할 뿐입니다.”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공부로 말하면, 精一은 곧 誠意·正心·修身이며, 그 中은 곧 지극히 선한 데 이르는 것이며 본성의 전체는 혼연해서 至善에는 본디 過不及의 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사 수재가 대답하기를, “죽하는 이미 心學의 본체에 밝으니, 절충하여 비유하면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하였다.³²⁾

31) 『심경』은 중국 南宋대 학자 眞德秀(1178~1235)가 四書三經과 『禮記』 및 周敦頤, 程子, 范浚, 朱子의 心學에 관계된 글을 발췌하고 그 아래 宋代 諸賢들의 관련 학설을 註로 붙여 총 37장으로 편찬한 책이다.

32) 晴. 早去謝秀才房中, 請學心經, 則答曰, 心經只究人心道心之分, 而經之主意, 則只是一箇敬字. 蓋敬者, 主一無適, 而常惺惺法, 無一物不得容其中. 故聖賢徹上徹下之功, 都在

노인은 여러 수재(생원의 별칭)들과 교유하였는데, 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謝兆申과 倪士和로 이들은 노인과 교유가 깊어 노인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 山海關까지 배웅을 하기도 했다. 노인은 일기에는 ‘사 수재’, ‘예 수재’라고 기록한 경우가 많다.

위는 5월 23일 일기의 전문으로, 『심경』에 대한 문답만으로 그날의 일기를 채우고 있다. 『심경』은 조선전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조선의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는데, 기존의 『심경』에 宋, 元대 학자들의 설을 ‘附註’의 형태로 추가로 간행한 책인 『心經附註』는 退溪 李滉(1501~1570)이 극히 중시하여 말년에는 이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강론하기도 하였다.³³⁾ 조선 학자들이 애독했던 『심경』을 노인도 당연히 공부하였을 것이고, 직접 중국의 학자를 만나게 되자 이에 대해 문답을 한 것이다. 노인이 ‘精一은 곧 誠意·正心·修身이며, 그 中은 곧 지극히 선한 데 그치는 것이며 본성의 전체는 혼연해서 지선에는 본디 過不及의 차가 없는 것’이라 하여 『심경』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조신이 이미 심학의 본체에 밝다고 평한 것을 통해 노인의 학문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은 예사화에게 초학자가 간절하게 공부할 것을 묻고(5월 12일), 서종악이 주장하는 도학에 대해 물으며(5월 14일), 『대학』의 경문에 대해 예사화에게 묻고(5월 26일), 『공자가어』의 권이 조선과 다른 것에 대해 묻고(5월 27일), 예사화와 유학의 경세제민에 대해 토론하

敬而已。若不以敬操之爲心上之功，則紛華波動，發如奔霆，莫知其鄉矣。足下曾在本國，既與師友，講明有素，則心經不須再講而明矣。且吾道一以貫之，則蓋一者，乃精一之一字，只分人與道之間，以敬操之而已矣。我答曰，以工夫論之，精一乃誠正修，而厥中乃止至善，本性之全體渾然，至善本無過不及之差，未知如斯否。秀才曰，足下已明心學之體，折衷比喻，大都則然矣。- 魯認, 『錦溪日記』, 1599年 5月 23日.

33) 정일균, 「다산 정약용의 ‘心經’론 - ‘心經密驗’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3, 한국 사회사학회, 2007, 338-339쪽.

는(6월 3일) 등 학문적인 것에 대한 문답으로 그날의 일기 전체를 채우는 것이 많다. 또한 과거 제도(6월 2일), 서원(6월 9일), 세법(6월 11·12·13일), 군사 제도(6월 14일), 상례(6월 20일) 등 중국의 여러 가지 제도에도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해 묻고, 대답을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중국인들의 자세한 대답이 일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말로 대화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 일기로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필담은 종이와 붓을 통해, 문답한 내용이 오늘날의 녹음기처럼 고정되어 남아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심있는 대답을 일기에 옮겨 적어 구체적인 사항까지 기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금계일기』는 중국인과 문답하는 부분이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일본 억류 중 탈출을 준비하는 부분 및 탈출 과정과 비교해도 그러하고, 같은 일기체인 『간양록』의 「섭란사적」과 『월봉해상록』의 「해상일록」과 비교해도 가장 풍부한 양을 지니고 있다.

Ⅲ. 『금계일기』에 반영된 작자 의식

노인은 전쟁 중에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으며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위협과 일본인의 억류에서 벗어나 유학의 본 고장인 중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금계일기』에는 노인의 유학자적 의식³⁴⁾이

34) 본 논문의 유학자적 의식은 忠孝의 유교적 관념이 아닌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의 관심을 의미한다.

반영되어 있다.

강항과 같은 관료의 입장이 아니었던 노인은 仕宦 의식이나 죄책감이 크지 않았으며, 정희득과 같이 개인적 슬픔에만 몰두하지도 않았다. 그는 유학의 본 고장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학자들과 교유하고 강학에 참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학문에 대해 묻고 토론하며 중국의 체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부분만 봐서는 전쟁 포로로서 일본에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임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의 선비가 유학자적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항과 정희득의 실기에서도 충효의 유교적 관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 포로로 해외체험 중에 유학자적 의식을 주된 작자 의식으로 실기를 기록한 것은 중국 체험이라는 특수성과 관료가 아니었던 상황과 맞물린 『금계일기』만의 개성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글은 양현사서원에 머무르게 된 이튿날에 수재들과 나누는 대화로, 노인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수재들의 방으로 가니, 수재들이 말하기를, “매일 아침 모두 모여 서 종사의 影像에 배알하고 동서로 나뉘어 읊을 한 뒤에 각기 자기 방으로 물러나와 그날의 과업을 시작합니다. 노 선생께서도 이미 이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일을 따라 한결같이 이곳의 규칙을 따름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꼭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이 중국에 도착하여 이러한 禮樂을 들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더욱이 외람되게 종사의 추천을 받아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으니, 오직 不敏함을 두려워할 뿐이니,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오직 선생들께서는 게으름이 없는 사랑(仁)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³⁵⁾

35) 早起整衣冠, 進拜秀才房, 則秀才曰, 每朝諸會, 參謁徐宗師影像, 而分東西壁參揖然後, 各退房中, 以做課業. 魯先生已留院中, 隨吾儕事業, 一從院中會規否. 我答示曰, 萬死之餘, 到此中國聞此禮樂幸甚. 況叨承宗師之薦, 已聞諸賢之教, 唯恐不敏, 敢不承教. 惟先

위는 5월 13일 일기의 첫 부분으로, 12일에 양현사서원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은 후의 기록이다. 수재들이 자신들을 따라 이곳의 규칙을 따르라고 하자 노인은 '중국에 도착하여 예약을 들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들 것이니 게으름 없는 사랑을 돈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노인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예약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게으름 없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강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국인들의 호의에 대한 예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국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이후라는 점, 이후 강학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학문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묻는 점, 고국을 그리 는 마음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노인의 본심이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후 5월 15일에 서종약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러한 노인의 유학자적 관심을 볼 수 있다. 서종약은 노인이 양현사서원의 강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유학의 의리를 토론한 자신의 저서 『閩中答問』 8권과 은 2냥 등을 노인에게 주었으므로, 노인이 5월 11일에 감사 편지를 쓴 데 이어 다시 편지를 쓴 것이다. 이 편지에서 노인은 학문에 뜻이 있었으나 스승 困齋 鄭介淸 선생이 죽은 후 스승이 없어 괴로웠으며, 전쟁 중에도 유학을 공부하였다 하여 항상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겪은 후 중국으로 와서 서종약의 도움으로 강학에 참여하여 학문을 들으니 공자의 집안을 직접 보는 것과 같아 저녁에 죽어도 유감이 없다고 하여 중국에서 학문을 익히게 된 데 대한 기쁨을 드러낸다. 정개청(1529~1590)은 나주 출신으로, 禮

生益篤不倦之仁也。 - 魯認, 『錦溪日記』, 1599年 5月 13日.

學과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당시 호남지방의 명유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에게 유학을 공부했던 노인이, 스승이 돌아가신 후 학문적 갈등을 느끼다가 강학에 참여하면서 학문적 희열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노인의 유학자적 관심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喪禮를 보고자 하여 직접 상갓집을 찾는 기록에서이다.

① 내가 따라가서 그 집에 다다르니, 상제가 齊衰服에 腰經과 首經을 두르고, 대지팡이를 짚고 窆신을 신고 堂中の 널 앞에 서서 통곡하는데, 여러 수재도 나란히 서서 마주 곡하되 절은 하지 않는다. 대개 널은 옷칠을 해서 극히 아름다운데 북쪽 벽 밑에 놓여 있다. 또 초상을 널 앞에 세웠으며, 서쪽에는 붉은 銘旌을 세웠고 동쪽에는 枕席과 이부자리를 마련하여 놓았다. 또 白紗帳으로 사면을 두르고 아침, 저녁으로 널을 掃除한다. 대개 이 상례는 순전히 晦菴의 『家禮』를 純用한 것인데, 다만 명정에 쓰기를 顯考行年七十三歲李公之柩라 하였으니, 우리와는 크게 같지 않다. 이윽고 여러 수재가 인사하고 돌아가려 하니, 상제가 만류해서 차를 내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상제도 또한 채식으로 겸상을 하니, 이 또한 주자의 예는 아니다.³⁶⁾

② 맑음. 저녁 무렵에 예 수재의 방에 나아가 예를 갖추어, “어제 상가의 예가 『주자가례』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고, 銘旌은 크게 같지 않습니다. 초상에 상제가 손님과 겸상하는 것은 또 크게 『가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였다. 여럿이 말하기를, “大江(揚子江) 남쪽에서는 혹 『주자가례』를 순전히 따르기도 하고 혹 다르기도 하며, 강 북쪽에서는 순전히 쓰지 않으니, 대개 陸學(육상산의 학문)이 그것을 혼란케 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³⁷⁾

36) 我隨到其家，則喪者穿齊衰腰首經，持竹杖履芒鞋，立於堂中喪柩前痛哭，而諸秀才亦列立對哭而不拜。蓋喪柩則用漆極美，而置於北壁下。又立影像於柩前，而西邊立丹旌，東邊設枕席衾褥。又以白紗帳繞於四面，朝夕掃柩。蓋此喪禮，純用晦庵家禮，但銘旌則書之曰，顯考行年七十三歲李公之柩，比則大不同也。俄而，諸秀才辭歸，則喪人固勸挽留，薦茶而薦飯，喪者亦以蔬菜對飯，此亦非晦庵之禮。- 魯認，『錦溪日記』，1599年 6月 19日。

37) 晴。臨夕，就倪秀才房曰，昨日喪家之禮。與晦庵家禮彷彿而相異，銘旌大不同。初喪與客

①은 6월 19일의 일기의 일부분으로 상갓집에 가서 상례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보고 묘사하고 있다. 이 상갓집에 가게 된 것도 여러 수재가 조문 가는 것을 보고 儒家의 상례를 보고 싶다고 노인이 부탁하여 따라간 것으로, 유가의 상례를 보고 싶어하는 노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알 수 있다. 노인은 상제의 차림새, 널의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주자의 예에 맞는지를 살핀다. 즉, 노인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주자가례』에 맞게 상이 치러지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②는 상갓집에 다녀 온 다음 날인 6월 20일 일기의 전문으로 어제 상가의 예 중 銘旌 등 『주자가례』와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주자가례』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간단한 설명을 실고 있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빈객이 護喪(상례에 관한 일을 주선하고 보살피는 사람)의 인도로 들어가 靈座 앞에 이르면 곡을 하고 再拜 분향해야 한다. 이후 빈객은 再拜를 한 번 더 하고, 주인에게 答拜 하는 예가 두 번 더 있다.³⁸⁾ 그런데 위의 기록을 보면 ‘마주 곡하되 절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빈객이 절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銘旌에는 ‘某官某公之柩’라고 하여 관직과 이름만이 쓰여야 하고, 관직이 없을 시 學生과 같이 살아 있을 때의 칭호를 써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는 관직이 들어갈 자리에 ‘顯考’라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먼저 칭한 후 ‘行年七十三歲’라고 하는 나이를 가리키는 내용을 적고 있어, 『주자가례』의 예와는 크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빈객이 靈座 앞에서 예를 다하고 나오면, 주인은 다시 곡하면서 들어가고 호상이 차와 탕을 대접한다. 그런데 위에서

對飯，又大違禮矣。諸等曰，大江之南，則或純用而或不同，江北則純不用之，蓋陸學亂之矣。- 魯認, 『錦溪日記』, 1599年 6月 20日.

38) 『주자가례』의 상례와 관련하여서는 임민혁 번역, 『주자가례 - 유교 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 예문서원, 1999, 227-316쪽 참조.

는 주인인 상제가 직접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겸상까지 하니 『주자가례』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도입되어,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유교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⁹⁾ 『주자가례』를 익히며 중시했던 노인은 유가의 상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상갓집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주자가례』가 만들어졌던 나라에서 내용과 어긋나게 상례를 치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노인은 상갓집을 다녀 온 다음 날 상례 중 『주자가례』에 어긋나는 것을 물어 기록하는 등 상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소중화주의를 지향하는 노인이 중국의 학문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포로로 일본에 억류된 경험을 겪고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 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학자적 관심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유학의 본 고장을 경험하게 되는 노정에서 유학자적 관심이 발현된 것이다. 이는 강항이 관료로서 훗날의 대비를 위해 일본의 제도를 파악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으로, 강항이 조선을 위한 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제도를 파악했다면 노인은 중국 제도에 대해 유학자적 관심을 가진 것이다. 노인의 『금계일기』 중 중국 노정 부분, 특히 양현사서원의 강학 참여 이후 부분에는 이러한 유학자적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39) 이민주,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구』 16,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39쪽.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인 노인 『금계일기』의 서술적 특성과 작자 의식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 중 탈출에 의한 중국으로 이동과 중국 생활은 노인만의 특수한 노정으로, 이 노정으로 인한 『금계일기』만의 서술적 특징을 가진다. 그리하여 『금계일기』의 서술적 특성은 ‘탈출 과정의 구체적 묘사’, ‘최귀문과 중국인 문답’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강항, 정희득 등이 일본의 승인을 얻어 귀환을 한 데 반해, 노인은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일본인 몰래 목숨을 걸고 탈출하였다. 노인은 이 격정적인 탈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 노인은 중국인들의 도움 속에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지만, 조선으로의 출발이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노인은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인 ‘최귀문’을 쓰게 된다. 중국에서의 생활 중에는 감정 서술이 적었던 노인은 이 공식적인 글인 최귀문에 본인의 감정을 서술하는데, 특히 귀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돌아가는 날이 확정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강학에 참여하며, 중국인들과 교류하게 된 노인은 중국인과의 문답을 일기에 신는다. 새로 접한 중국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이 중국의 학문이나 제도 등에 대해 물은 것에 대한 중국인의 대답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노인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계일기』에 반영된 작자 의식으로 유학자적 의식을 볼 수 있었다. 강항과 같은 관료의 입장이 아니었던 노인은 사환 의식이나 죄책감이 크지 않았으며, 정희득과 같이 개인적 슬픔에만 몰두하지도 않았다. 그는 유학의 본 고장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강

학에 참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학문에 대해 묻고 토론하며 중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부분만 봐서는 전쟁 포로로서 일본에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임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의 선비가 유학자적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항과 정희득의 실기에서도 충효의 유교적 관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 포로로 해외체험 중의 실기에 유학자적 작가 의식이 두드러진 것은 중국 체험이라는 노정과 관료가 아니었던 상황이 맞물린 『금계일기』만의 개성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魯認, 『錦溪日記』

魯認, 『錦溪集』

姜沆, 『睡隱集』

鄭希得, 『月峯海上錄』

許筠, 『惺所覆瓿稿』

『宣祖實錄』

노인, 『금계일기』, 《국역해행총재》 IX, 민족문화추진회, 1977.

노인, 『금계일기』,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9.

노인 지, 노기욱 역, 『임진 義兵將 魯認의 금계집 국역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강항, 『간양록』, 《국역해행총재》 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정희득, 『해상록』, 《국역해행총재》 VIII, 민족문화추진회, 1977.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37쪽.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4-58쪽.

- 김성애, 「錦溪集 해제」,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해제3』, 민족문화추진회, 1999, 29쪽.
-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금계일기'를 중심으로 -」, 『새얼어문논집』 10, 새얼어문학회, 1997, 94-95쪽.
- 김진규, 「임란 포로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4쪽, 17쪽, 26쪽.
- 노기욱, 「錦溪 魯認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11쪽.
- 노기욱, 「壬亂義兵將 魯認의 日·中遍歷과 對倭復讐策」, 『한국인물사연구』 2,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313-316쪽.
- 이민주,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구』 16,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39쪽.
-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38쪽.
- 장경남,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90쪽.
- 정일균, 「다산 정약용의 '心經'론 - '心經密驗'을 중심으로 -」, 『사회와역사』 73, 한국사회사학회, 2007, 338-339쪽.
- 주희 저, 임민혁 역, 『주자가례 - 유교 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 예문서원, 1999, 227-316쪽.
- 홍원식, 「주자학의 요람, 福建 武夷書院」, 『오늘의 동양사상』 12, 예문 동양사연구원, 2005, 22-25쪽.

Abstract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Author's Mindset
in 『Geumgyeilgi(錦溪日記)』**

Kim, Mi-Sun

This paper examined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Geumgyeilgi (錦溪日記) written by No In(魯認, 1566~1622) and the author's mindset. The travelogue describes his POW lif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his escape to China from Japan, and his life in China, characterizing No In's trips. The travelogue'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re categorized int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his escape process, and into his Plea for Return to Home and His Question and Answer with the Chinese. No In's return to home involved escape from Japan as a POW. Thus, his escape was tough, which was described in detail by No In. After escaping to China, his departure for Joseon was not easily decided, so he expressed his ardent wish to return home by writing a Plea for Return to Home. Also, No In wrote about China's questions and answers with the Chinese such as Chinese studies and systems amongst his Chinese life.

The author's attitude and mindset, reflected in Geumgyeilgi, are associated with Confucianism. While No In experienced China, home to Confucianism, he interacted with Chinese Confucian scholars, attended activities in pursuit of study, and discussed various subjects, showed interest in Chinese systems, according to Geumgyeilgi. He naturally took interest in Confucianism as a scholar of Confucian country Joseon. However, he as a POW wrote about Confucian mindset in line with his trips and as a non-government official, characterizing Geumgyeilgi.

Key Word

No In, Geumgye ilgi, war-of-prisoner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China trip, descriptive characteristics, Plea for Return to Home, author's mindset

- 논문투고일 : 2012.6.28 심사완료일 : 2012.7.23 게재결정일 : 2012.8.6